"인성 · 체험교육 프로그램 특화 급선무"

'종립학교를 가다' 연재를 마치고

좌담 :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제언

본지는 지난 6월 13일자 322호부터 17회에 걸쳐 '종립학교를 가다'를 연재했다. 전국 27개 종립 학교를 소개했다. 그동안 기사화되지 않았으나 소개할 것도 많았고 행간에 숨은 아쉬움도 많았다. 기획을 마치며 좌담을 통해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제언'을 묶었다. 좌담은 종교시설과 포교과제, 교육프로그램, 교법사의 위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 주〉

참 석 자

이원주(명성여고 교장)
이학송(광동여고 교감 · 사회)
박영동(동대부고 · 전국교법사단장)

◇종립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내 법당시설의 확대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진은 10월 26일 명성여중에서 열린 교학발표 수업장면.

이학송: 사립학교의 80%이상이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회가 독립적으로 세워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요예배를 보는 등 왕성한 종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립학교에서는 최근 광동종고가 지난달 말 법당을 완공하는 등 종교시설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립건물로 분리된 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해 일요법회 등 신행활동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내 법당문제 해결

이원주

"기독교 10분의 1 불과 종립학교 수 늘려야"

이 종립학교 발전의 상징적 출발점이 아닐까요.

박영동: 서울 소재 종립학교의 경우 교실을 개조해 법당을 만든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출입이 어려운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교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종립학교가 가지는 정체성의 구심점이 바로 법당입니다. 학생들이 3년등안 생활하면서 법당에 들어가 보고 교정 내에 봉안된 불상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레 훈습이 되어 불교에 익숙하게 되고 인성형성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고 졸업을 하더라도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교내에 불교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국기게양대 등에 성상을 봉안하는 것은 오히려 존경심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학송: 교법사는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거나 이미 불교적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육학을 전공해 학교에서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고 널리 알리는 전법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할과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신행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파라미타 등 종단차원의 청소년 포교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아직까지 교법사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원주 교장선생님이 동국학원 초대 교법사로 부임하셨으며 교법사의 산 증인 아니십니까?

이원주: 저는 1968년 동국학원 초대 교법사로 임명을 받고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법사는 가르칠 교(敎)자를 써서 교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군법사, 교목, 군목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69년 종립학교연합회에서 지금의 교(校)법사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즉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운 것이지요. 특히 동국학원의 경우 지난해 이사장 스님이 법사 인증서를 수여 교내에서 교사와 법사로서의 위상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박영동: 1968년 6명이 처음으로 교법사에 부임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국 불교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 및 일반 청소년 교화사업과 단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69년 교법사회가 창립되었고 지금은 1991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법사단에서는 교법사의 자질 함양을 위해 수련대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교학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법사들은 다른 선생님과 동일하게 교사로서의 업무를 보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신행활동을 주도하고 대외적으로 인근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청소년 포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 항상 시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원주: 저 자신도 교법사로 오래 활동해 왔기 때문에 교법사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이 공식적인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단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나마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종단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사명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학송: 최근 군법사 출신 교법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법사는 승려신분으로 의식을 모두 집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관혼상례 전반에 대한 종교적 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법사단에서 공동 집필로 청소년 포교 관련 책도 발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교법사는 불교계 최고의 재가 엘리트라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학송

"탁본 · 사경체험 등 문화포교 바람직"

박영동: 교법사들은 종립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을 위해 교법사단 차원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교학 발표회를 통해 교학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서로 공유하며 종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송: 종립학교는 설립정신과 활동영역에 있어 인성교육,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CA 전일제, 재량활동 시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합니다. 지역 사찰에서 탁본체험, 사경체험 등 프로그램을 만들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실시되면 학생들 또한 여유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 활용해 종립학교에서는 가족, 학급별로 1박 2일 정도의 사찰체험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자연스런 포교인 셈이죠.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 계발로 기존의 학교가 관리되는 것만큼이나 종립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원주: 서울의 S대학의 경우처럼 기독교 단체가 설립하지 않았는데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종립학교도 이같이 사찰에서 설립하지 않고 재가 불자의 원력으로 세워진 학교를 찾아내어 불교교육연합회 가입을 권유해야 됩니다. 종립학교는 현재 기독교 재단 학교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종립학교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영동: 경남의 S고처럼 법당도 있고 교법사도 있지만 불교교육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스님들이 신도들이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면 종립학교로 편입을 권유해야 하고 사암연합회나 종단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학송: 교육계에서 항상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지역 사찰들이 학생들에게 개방된다면 종립학교들은 최상의 인성교육의 환경을 갖게 되는 셈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인식 전환과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박영동: 최근 신문에서 청소년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립학교 학생들은 인성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를 예를 들자면 작년부터 학생선도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교법사의 상담 역할이 컸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학교에서 상담 부장 및 교학부장을 맡아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모든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법사님도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카운슬러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학송: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탓에 학생들이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인지 사찰 학생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내 불교 동아리들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부 때문에 학생들을 절에 안 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스님들이 신도교육을 통해 법회에 참석하는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박영동: 최근 교육과정이 체험학습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찰과의 유대가 필수적입니다. 스님들도 학교를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 하고 사찰 또한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하며 더불어 사찰에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넓혀 학생들이 자연스레 사찰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본사 사암별로 관내 학교의 불교신자 선생님과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자교사들에게 상도주고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 등에 가입을 유도해야 하지요. 교사불자연합회가 활성화 되면 이들이 파라미타와 같은 청소년 운동에 동참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청소년 포교로 그 효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 발굴이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가르칠 자신감이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이원주: 교사불자연합회를 활성화 시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불자교사들이야 말로 포교의 황금어장인 학교의 훌륭한 포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전 불자교사의 교법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과 수업시 불교적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지요. 수련회,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단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영동

"학생들 이용 쉽게 독립법당 갖춰야"

종단에서 교법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년 퇴임한 교법사들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상임포교사 등 제도적 장치를 두어 법회에 지도법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지원해 주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사 넘쳐 '이선옥의 선무건강법'은 쉽니다.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
아토피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回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回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3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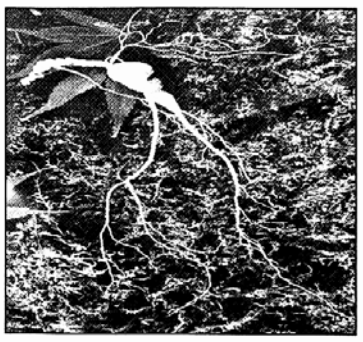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敬愛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家道와 修道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회복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섭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저 하오니 부담없이 到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